

청년의 고립된 자아와 디스토피아적 상상력

- 김애란 소설을 중심으로 -

장미영*

「차례」

1. 들어가며
2. 장소상실의 ‘방’과 익명의 존재
3. 비주거지 거주와 자기정체성의 혼란
4. 철거된 ‘방’과 유폐된 자아
5. 마치며

〈국문초록〉

소설에서 공간은 서사의 배경이자 인물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인물이 생활하는 현장은 주체의 정체성은 물론 사회·경제적 관계망까지도 보여준다. 김애란 소설에 등장하는 청년세대의 삶은 현대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특성과 맞물려 이해할 수 있으며, 작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의 척박한 현실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잠시 거처하는 ‘방’¹⁾을 통해 재현하고 있다.

이 글은 김애란 소설에 나타난 공간적 표상, 공간과 인물의 인식을 통해 발생하는 공간의식을 통해 인물의 자아정체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

* 한성대 강사

- 1) ‘방’과 ‘집’의 구분은 장소적 차이는 물론 거주지로서 기능은 유사하나 ‘집’은 행정적 공간의 의미를 포함하여 방, 부엌, 화장실 등과 같은 부속 건물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였고, ‘방’은 행정적 의미는 배제한 거주 공간, 심리적 공간으로 국한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의 ‘집’은, ‘家’는 소멸되고 주변의 기능적 공간의 배치와 효율성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부동산’의 개념으로 전락하였다. 김애란 소설 속 인물이 장소로서 구체성을 상실한 ‘집’이 아닌 ‘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자기 정체성 구성을 용이하게 만들고 자신의 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청년세대가 거주하는 공간의 불평등은 청년세대의 사회적 위상,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간적 특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비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도시의 통제로부터 비껴 서있으며 도시 거주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척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인물이 명랑성과 여유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애란 소설의 서사 공간은 현대사회의 단자화 되고, 물화 된 존재의 정체성을 대변해준다. 청년실업문제, 가족관계의 약화, 인간소외와 인간의 도구적 존재로서 전락 등등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반지하 셋방, 옥탑방, 원룸, 고시원, 합숙소, 편의점과 같은 인물의 거주공간과 생활공간, 경험 공간 등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다. 인물이 공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세계-내-현존재’로서 무시되고 소멸되는 개인의 한계와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김애란 소설 속 인물은 개인의 한계를 결핍으로 인식하고 주저앉는 대신 자기만의 방식으로 척박한 현실을 마주하고 적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과 소통의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핵심어: 공간성, 공간의식, 청년세대, 인간소외, 거주 공간, 방, ‘세계-내-현존재’, 정체성

1. 들어가며

문학의 공간, 작품 속 공간²⁾은 서사의 공간적 배경이자 작가의 세계

2) ‘공간’과 ‘장소’라는 개념은 각자의 개념 정의를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장소의 안전(security), 안정(stability)과 구분되는 공간의 개방성, 자유, 위협을 알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 단서이다. 서사 공간은 인물이 존재하고 행동하는 출발점이자 그 자체로도 서사적 의미를 내포한다. 동시대 같은 공간에 대해서 작가의 입장에 따라 ‘소외’의 공간으로 또는 ‘성찰’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바는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독자의 입장에서도 공간의 기호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서사에서 공간성은 작가가 대상 공간을 텍스트에 형상화하여 그려내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텍스트에 형상된 공간을 독자가 해석하는 데서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고 덧붙여진다. 작가와 독자 사이에 형성된 공간의식은 서사를 통해 공간적 구체성을 획득하게 되고 공간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형성하게 된다.

문학에서 논의하는 공간성의 문제가 인물의 의식, 느낌과 체험이 담긴 공간의 문제라면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 개념은 유효한 것이 된다. 하이데거가 『시간과 존재』에서 논급한 현존재와 시간성 담론은 공간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제시한 현존재의 공간성은 삶이 세계에서 인간이, 특히 현존재가 문제되는 공간개념이다.³⁾ 공간은 현존재의 실존적 구성틀인 ‘세계-내-존재’의 구심을 이루는 기제로 여겨지며, 시간의 제약과 존재자 층위에 한정되고 구획된 장소를 초월한 현존재의 기획투사의 장이자 그 소산으로 이해된다.⁴⁾ 인간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은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의 의식을 지배한다. 따라서 서사적 공간은 서사의 배경인 동시에 인물의 의식과 행동을 추동하는 원리가 될 수 있다.

김애란 소설에 등장하는 청년세대는 현대 후기자본주의 시대적 특성과 맞물려 이해할 수 있으며, 작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의 척박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비판적 현실인식은 인

고 있으며, 그 역 또한 알고 있다. 나아가 우리가 공간을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라 생각한다면, 장소는 정지(멈춤)이다. 움직임 속에서 정지할 때마다 입지는 장소로 변할 수 있다. 이-푸 투안 지음,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8, 19~20쪽.

3) 장일구, 『서사적 공간론 이론과 실제』, <서강어문>No1, 서강어문학회, 1997, 201쪽.

4) 장일구, 『경계와 이행의 서사 공간』,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30쪽.

물이 생활하고 거주하는 공간을 통해 구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은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장소로 거듭난다. 즉, 장소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연루된 갖가지 다양한 장소의 확인을 통해 공간들이 쌓이면서 생성된다. 장소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속성을 가지며 주관적이고 개성적이고 독특한 것을 담고 있는 개념이며, 분위기(atmosphere)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매일같이 익숙한 장소확인인과 낯선 장소확인을 반복하며 장소들과 관계 맺기 때문에 장소는 실존(existence)이 통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⁵⁾ 반지하 셋방, 옥탑방, 원룸, 고시원, 독서실, 합숙소 같은 주거 공간은 단지 인물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간에 거주하는 청년세대의 출구가 막힌 현재와 불안한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들이 도시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를 전전하는 것은 그들의 계층과 정체성을 대변해 준다.

특히 김애란 소설의 주요 중심인물인 청년세대의 주거공간은 그들이 부모 혹은 원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하는 출발점이라는 데 주목을 요한다. 그들이 주거지로서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간에서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은 그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로 지속되고 비극적 삶의 근원이 된다.

김애란은 2003년 단편 「노크하지 않는 집」으로 대산대학문학상(소설부문)을 수상하며 문단에 데뷔하였다. 2005년 「달려라 아비」로 제38회 한국일보문학상 역대 최연소자(25세) 수상자가 되어 수상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⁶⁾하였으며 명실상부한 2000년대를 대표하는 젊은

5) C. 노베르그 슬츠, 민경호 외 옮김, 『장소의 혼: 건축의 현상학을 위하여』, 태림문화사, 1996, 11쪽.

6) 2008년 단편 「칼자국」으로 제9회 이효석문학상 수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 2009년 「침이 고인다」로 제27회 신동엽창작상, 만해문학상 수상, 2010년 「너의 이름은 어머니」로 제4회 김유정문학상 수상, 2010년 「그곳의 밤 이곳의 노래」는 제34회 이상문학상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 제2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 「침묵의 미래」로 제37회 이상문학상을 최연소 수상하였다.

작가 중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첫 소설집 『달려라 아버지』(2005), 두 번째 소설집 『침이 고인다』(2007), 첫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인생』(2011), 세 번째 소설집 『비행운』(2012), 제37회 이상문학상 수상작 『침묵의 미래』(2013)에 이르기까지 베스트셀러로 문학적 평가와 대중성 모두를 인정받고 있다.

김애란에 관한 연구는 학위 논문 3편⁷⁾을 제외하고는 작품론과 주제론, 2000년대 젊은 작가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학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 주를 이룬다. 이들 연구⁸⁾의 공통적인 평가는 후기자본주의 사회

- 7) 김재덕, 『김애란 초기 단편소설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논문, 공주대학교, 2011.
 이영미, 『김애란의 성장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12.
 김희준, 『김애란 소설의 공간과 인물 태도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논문,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이외에 주제적으로 논의되는 학위논문도 2편 있다.
- 8) 김애란에 대한 연구로는 권성우, 『조숙한 청춘의 문학-김애란론』, 『낭만적 망명』, 소명출판, 2008; 김나정, 『성난 얼굴로 뒤돌아보지 말라』, 『문학동네』 제48호, 문학동네, 2006; 김예림, 『두도시 이야기: 김애란과 편혜영 읽기』, 『오늘의 문예비평』 68호 8, 『오늘의 문예비평』, 2008; 나병철, 『환상소설의 전개와 성장소설의 새로운 양상』, 『현대소설연구』 제31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백지은, 『탈(脫)성장의 정치적 상상력- 200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키덜트’현상과 담론』, 『비평문학』 제33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송지연, 『아이들의 우주적 네트워크-2000년대 한국소설의 패러다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신형철, 『소녀는 스피노자를 읽는다』, 『문학동네』 제49호, 문학동네, 2006; 양윤의, 『서울, 정념의 지도-200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5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오창은, 『여기, 상상력의 불꽃놀이가 시작되다』, 『소설 이천년대』, 생각의 나무, 2007; 우미영, 『현대 소설과 가족의 탈근대- 윤성희 · 김애란 · 강영숙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1권, 한국문예비평학회, 2006; 우찬제, 『접속시대의 최소주의 서사- 김미월 · 김애란 · 한유주』, 『문학과 사회』 제73호, 문학과 지성사, 2006; 이도연, 『정직과 관대 혹은 욕망의 자기 윤리학』, 『문학동네』 제52호, 2007; 이수형, 『미디어의 환상을 넘어서- 김중혁 · 한유주 · 김애란의 소설』, 『문학과 사회』 제70호, 문학과 지성사, 2005; 이정석, 『작지만 경쾌한 소설들- 김애란론』, 『멜랑콜리아의윤리』, 작가와 비평, 2011; 이평전, 『현대소설에 나타난 ‘일상’ 재현의 의미와 ‘주체’ 서사연구-정이현, 김애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정혜경, 『여성성장소설에 나타난 가족서사의 재구성- 아버지부재(不在)모티프에 대한 서사적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44집, 국제어문학회, 2008; 진정석, 『사회적 상상력과 상상력의 사회학』, 『창작과비평』 제134집 4, 창작과 비평사, 2006; 황중

를 살아가는 청년세대의 고독과 아픔을 기발한 상상력과 감각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김애란의 소설은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를 대리하는 억척스러운 어머니에 관한 가족이야기,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열악한 환경에 고군분투 하는 청년세대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개인의 존재가 소멸해 가는 단자화 된 인간존재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무겁고 비극적인 삶에 대해 인물들의 태도는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절대적인 빈곤상황과 무능한 부모세대로 인해 물질적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지만 특유의 상상과 유머를 통해 극복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김애란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가족관계의 단절, 도시의 외곽에 자리 잡은 청년세대의 비루한 삶조차 받아들이고 끌어안으려 한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을 더욱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그 간극은 현실의 비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기존의 김애란 소설 연구는 여성의 ‘反성장소설’, ‘가족 로맨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역전된 사고와 최악의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인물들의 말하기 방식은 창작 방법론의 문제가 아닌 작가의 사유구조의 자장에서 이해해야 한다. 서술된 말은 정보 제공의 의미는 물론 행간을 넘어선 현실인식으로 이어져 세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드러내며 서사적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김애란 소설에 나타난 공간적 표상과 장소, 인물의 인식을 통해 발생하는 공간의식과 인물의 자아정체성 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써 작가의 세계인식과 후기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의 자기정체성 확립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백낙청, 『무엇이 한국문학의 보람인가- 문학평론가 백낙청과의 대화』, 『창작과비평』 제131호 1, 창작과 비평사, 2006 등이 있다.

2. 장소상실의 ‘방’과 익명의 존재

인간에게 ‘집’, 개인에게 ‘방’은 기거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이다. 개인의 삶은 ‘방’에서 ‘집’으로 다시 ‘집’에서 ‘세계’로 확장되고, 연결되어 성장하게 된다. ‘방’은 출생과 휴식, 타인과 분리된 최소한의 독립공간이고, ‘집’은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안정된 삶의 보금자리로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재충전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다. 집에서 가족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받기도 하고 함께하는 동안 유대감과 공동의 기억을 쌓아간다.

인간은 집에서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낀다. 또한 집은 인간에게 외부세계와 분리된 내부공간에 머물게 하고 안정과 평화를 경험하게 한다. 이때 집이 내포하는 내부공간으로서 의미는 외부세계로부터 물리적 보호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아우른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은 주변의 기능적 공간의 배치와 효율성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부동산’의 개념으로 바뀌었다.¹⁰⁾ 즉, 가족 공동체 공동의 집이 아닌 개인이 전유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방’은 집의 최소 구성요소인 방, 부엌, 화장실과 같은 필수 시설이 미비한 독립된 공간으로서 집이 아닌 한 칸 ‘방’으로서 기능할 뿐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방’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저렴한 주거지를 표상한다. 최소한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방에 살게 되는 주체는 경제적인 압박과 위축된 자아를 느끼게 되고 공간의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의 신분으로 머물게 된다.¹¹⁾ 각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가족 구성원은 뿔뿔이 흩

9) 거주란 특정한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속해 있다는 뜻이다.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164쪽.

10) 에드워드 렐프는 ‘이른바 집은 개인으로서,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정체성의 토대이다. 집은 단순히 우리가 어찌나 우연히 살게 된 가옥이 아니며, 어디에든 있거나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집은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의미의 중심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감어린 주거공간으로부터 쫓겨나 떠돌아다니는 현대인들의 삶은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소속감과 귀속성을 잃고 부유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8, 97쪽.

11) 김애란 작품에서 ‘집’ 혹은 ‘방’을 소유한 인물이 세들어 살거나 잠시 같이 기거하

어져 거주하는 방식은 가족의 해체와 주거불안정 상태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한곳에 뿌리내릴 수 없는 이들은 도시의 부유하는 존재로서 위치할 수밖에 없고 익명화 된다.

김애란의 등단작 「노크하지 않는 집」은 장소로서 의미를 상실한, 생활 공간으로서 ‘방’이 서사 공간으로 그려진다.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불리는 방과 1번방 아가씨, 2번방 여자, 3번방 여자, 4번방 여자, 5번방 여자로 호명되는 그들에게 존재의 실존적 정체성과 인간관계를 기대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포스트 잇’에 메모를 적어 의사를 전달하는 이들의 소통 방식은 일방적이고 일회적일 뿐이다. 숫자로 호명되는 개인은 개성적이고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누구로도 대체 가능한 익명의 존재이다. 서로의 사적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생활 방식은 서로의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고 평화롭기까지 하다.

인간 사이의 관계와 소통은 대화 즉 말하기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기본인데 ‘집’으로서 장소성을 상실¹²⁾한 이들의 주거 공간에서는 대화와 소리가 사라진 일방적인 의사 전달과 요구사항의 수행 여부를 지켜볼 뿐 서로에게 개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들의 생활 방식은 사생활 존중과는 다른 양상으로 소통의 거부와 인간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다.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모으고 있는 화자 ‘나’는 대학교 근처에서 3평 남짓 단칸방에 세 들어 살고 있다. ‘나’는 1번방 아가씨로 호명되고, 같은 층에는 나를 포함하여 여자 5명이 같이 세 들어 살고 있지만 그들과 인간적인 교류나 소통은 없었다. 하나의 화장실과 세

게 된 인물들에게 텃세를 부리고 기득권을 요구했을 때, 거주자는 그들의 권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는다. 또한 좁은 면적에 심리적 위축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축된 인물의 왜소한 모습은 김애란 소설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2) 결국 ‘집’ 혹은 ‘방’의 장소성은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과 기억의 축적으로 구성된다고 전제한다면 ‘나’를 비롯한 이 집에 주거하는 구성원들은 서로를 인식하고, 교류하고, 공감하며 쌓아 올린 아무런 정감도 기억도 없다는 점에서 ‘집’ 혹은 ‘방’으로서의 장소성은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탁기, 빨래 건조대를 함께 사용하지만 서로 마주치거나 사용에 관한 대화를 나누어본 적도 없다. 어느 날 팬티 몇 장과 구두를 도둑맞은 ‘나’는 며칠 후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돌아온 구두를 보고, 범인을 잡겠다고 결심한다. 범인을 잡기 위해 열쇠수리공에게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가장 의심이 가는 5번방을 열어 보기로 한다.

……방안에는 세 칸 짜리 분홍색 서랍장 하나, 오른쪽 모서리 귀가 닳은 한 칸짜리 금성냉장고 하나, 그리고 생리중에 흘린 피가 까맣게 말라 있는 아이보리 요 한 채와 장미가 무더기로 그려진 이불이 있다. 세 칸짜리 서랍장 중 언제나 한칸은 양말이나 티셔츠가 기어나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이가 물려 있고, 냉장고 옆의 책장에는 몇 개 안되는 씨디와 책들이 있다. 대개는 서태지, 김현철, 이승환, 너바나, 비틀즈 등의 씨디다. 방문 쪽 콘센트에는 항상 휴대폰 충전기가 노란불이 켜 채 충전돼 있고 방바닥에는 군데 군데 담배빵 자국이 나 있다.¹³⁾

5번방을 본 후 충격을 받은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내방 열쇠로 4번방 문을 열어본다. 내방 열쇠로 4번방 문이 열리고 4번방이 열린다.

……방안에는 세 칸 짜리 분홍색 서랍장 하나, 오른쪽 모서리 귀가 닳은 한 칸짜리 금성냉장고 하나, 그리고 생리중에 흘린 피가 까맣게 말라 있는 아이보리 요 한 채와 장미가 무더기로 그려진 이불이 있다. 세 칸짜리 서랍장 중 언제나 한칸은 양말이나 티셔츠가 기어나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이가 물려 있고, 냉장고 옆의 책장에는 몇 개 안되는 씨디와 책들이 있다. 대개는 서태지, 김현철, 이승환, 너바나, 비틀즈 등의 씨디다. 방문 쪽 콘센트에는 항상 휴대폰 충전기가 노란불이 켜 채 충전돼 있고 방바닥에는 군데

13) 김애란, 『노크하지 않는 집』, 『달려라 아버지』, 창비, 2005, 241쪽.

군데 담배빵 자국이 나 있다.¹⁴⁾

‘징그럽게 똑같은 네 여자의방’을 목격한 ‘나’는 충격에 휩싸이고 ‘방’도 그 ‘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모두 똑같은 현실에 절망하게 된다. ‘나’는 존재도 공간도 개성도 사라진 극한의 익명의 세계에 던져진다. 낯선 이의 침입을 확실하게 막아줄 수 없고, 나만의 공간적 개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집’ 혹은 ‘방’은 더 이상 존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없다. ‘나’는 획일화 된 방을 두려움과 공포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혼란스러워하며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¹⁵⁾

하나의 열쇠로 열 수 있는 다섯 개의 방, 방을 구성하고 있는 가재도구, 소품, 방바닥의 자국까지 같은 방의 묘사는 화자인 ‘나’가 느끼는 공포의 극한을 보여준다. 혹시 네 방의 여자 중 누군가 자신이 방을 열어봤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던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여보세요?”와 “누구세요?”를 반복할 뿐이다. 메아리처럼 같은 말을 따라하는 ‘나’와 수화기 넘어 ‘너’를 구분할 수 없다.

『도도한 생활』의 제목은 ‘주체넘게 거만한’ 생활과 피아노 음계 ‘도’의 반복되는 소리를 이중적으로 의미하면서,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거실이 아닌 만두 가게에 놓인 피아노를 치는 도도한 생활을 반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도도한 생활과 거리가 먼 이들의 삶을 ‘평범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피아노이다. 부지런한 엄마 덕분에 도도한 생활이 유지되었지만 만두가게마저 망하게 되자 나와 언니는 삶의 터전¹⁶⁾인 집을 떠나 서

14) 위의 책, 241~242쪽.

15) 바슐라르는 집이 표상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집이란 세계안의 우리들의 구석인 것이다. 집이란 -흔히들 말하지만- 우리들 최초의 세계이다. 그것은 정녕 하나의 우주이다. 우주라는 말의 모든 뜻으로 우주이다.’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77쪽 그러나 김애란의 『노크하지 않는 집』의 ‘집’은 몽상과 추억이 살아 숨 쉬는 우주는 없다.

16) 거주공간과 생활공간, 노동 공간이 중첩되고 있는 ‘만두가게’는 가족이 함께 살고,

을 변두리로 이사하게 된다.

이들의 독립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강제적 분리이자, 도시로 강제 편입상황이다. 내가 언니와 함께 살게 된 집은 겨우 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지하 셋방으로 물건과 사람이 경계를 둘 수 없는 좁은¹⁷⁾ 공간이기도 하다. 나는 ‘어쩐지 여기, 서울 같지 않은’ 좁고 낮은 곳에 머물게 된다. 서울은 안락함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집’으로서 장소감을 발견할 수 없는 장소상실의 공간이다. 방과 중고가게가 겹쳐지는 이미지는 인간과 물건을 같은 위치에 놓고 사물화 하고, 인간이 거주하는 방과 집으로서의 장소감은 소거된다. 이들이 거주하게 된 반지하 셋방은 경제적 상태는 물론 변두리라는 공간적 위치와 주변인으로서 사회적 위상까지 드러낸다.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다. 방바닥엔 두 사람이 겨우 몸을 널만한 자리 밖에 없었다. 피아노 위로는 헤어드라이어와 라디오, 다리미 등 잡동사니가 올려졌다. 방 안은 무슨 중고가게 같았다. 창밖으로 지상의 길들이 전신주 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¹⁸⁾

저녁부터 폭우가 내렸다. ……나는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었다. 이물질이 잔뜩 섞인 새까만 빗물이었다. 그것은 벽지를 더럽히며 창틀 아래로 흘러내렸다. 벽면은 검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 같았다.¹⁹⁾

웬 그림자 하나가 스윽 나타났다. 무서운 얼굴을 한 사내였다. 나는 뒤

손님과 에피소드가 있고, 나와 엄마, 나와 아빠, 나와 언니가 가족으로서 공동체적 삶을 살았던 이야기가 있는 삶의 장소이다. 만두가게는 가족의 뿌리가 박혀있는 본래적 생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7) 일반적으로 인간은 좁은 공간을 자신을 괴롭히는 압박으로 느낀다. 그는 여기에서 벗어나 넓은 곳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 넓은 곳은 언제나 활동영역의 개방을 뜻한다.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지음, 앞의 책, 2011, 114쪽.

18) 김애란, 『도도한 생활』, 28쪽.

19) 위의 책, 36쪽.

로 자빠지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손등위로 출렁 빗물이 느껴졌다. 사내는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후들후들 떨며 “누구세요?”라고 말했다. 폭우에, 부채에, 겁탈까지 당할 생각을 하니 뭐 이따위 인생이 다 있나 서러워지려는 참이었다.²⁰⁾ ……나는 그가 언니의 예전 애인이라는 걸 알아챘다.²¹⁾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 중요한 것은 악천후와 원치 않은 낯선 이의 접근을 확실히 막아주는 개인 공간의 확보²²⁾이다. 집의 정의와 거리가 먼, 사물화 되고, 안전하지 않고, 자연재해조차 막을 수 없는 ‘집’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의 절망적인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도도한 생활’의 증거였던 피아노를 칠 수 없는 방은 ‘나’에게 도도할 수도, 평범할 수도 없는 추락한 삶과 존재의 왜소함을 각인시켜준다. 연인이 불안감 없이 온전히 서로에게 몰두할 방 한 칸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성탄특선』의 상황도 『도도한 생활』의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사내의 여동생은 성탄절을 맞아 ‘보통’의 연인처럼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를 하기 위해 4년이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옷이 없어서, 데이트 비용이 없어서, 야근 때문에 소홀하게 지내다가 헤어져서 결국 이 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돈’이었다. 드디어 4년 만에 옷도, 돈도, 시간도 다 갖춰졌지만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은 없었다.

서울살이 10여년, 사내는 많은 방을 옮기며 살아왔다. 다른 이들과 욕실을 같이 쓰는 단칸방도 있었고, 장마 때마다 바지를 걷고 물을 퍼내야 하는 반지하도 있었다. 그녀 역시 그 방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방에 따라 달라

20) 필자가 밑줄 친 부분은 반지하 셋방에 살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불안하고 울고 싶은 인물의 정서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

21) 위의 책, 39쪽.

22)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지음, 앞의 책, 2011, 170~171쪽 참조.

졌던 포옹과 약속에 대해서도, 그러나 어느 곳이든 따라 다녔던 초조에 대해서도 그녀는 다 알고 있었다.²³⁾

사적 공간인 ‘방’을 온전히 소유할 수 없을 때 주체는 자아 분열을 일으키고, 불안과 초조를 넘어서 공포를 느끼게 된다. ‘방’이 침범 당하는 것은 혼자 외로운 것 보다 참기 힘든 일이다. 이때 주체는 필사적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다. 「침이 고인다」의 그녀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도, 자기가 먼저 같이 살자고 했던 후배와의 동거도 어느새 ‘그녀는 어서, 고독해지고 싶다. 폭신폭신했던 고독감 속에 과묵히 휴일이면 온종일 인터넷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아무렇게나 입은 채, 아무 때나 일어나, 아무거나 먹어버리고 싶다.’²⁴⁾고 되뇌며 고독을 고대한다.

인간이 ‘집’을 친밀하게 느끼고 ‘방’을 안전하게 느끼는 것은 친밀한 경험과 안전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 기억하고, 기억을 토대로 상상과 추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생활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한 독립 공간의 확보를 의미한다. ‘집’과 ‘방’이라는 기호가 친밀함과 안전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생활, 그러한 기억, 경험과 추억이 의식과 감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처음부터 타인과 관계 맺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길들여진 주체는 어느새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고독이 편한 상태가 된다. 나와 친소관계, 친밀함의 정도와 상관없이 사적 공간인 ‘방’을 침범하는 외부인의 존재는 주체의 정체성을 교란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더 이상 거창한 공간이나 욕망을 꿈꾸지 않고 그저 다달이 방값을 밀리지 않고 낼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만족하는 이들에게 방의 크기와 외로움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23) 김애란, 「성탄특선」, 87쪽.

24) 김애란, 「침이 고인다」, 77쪽.

3. 비주거지 거주와 자기정체성의 혼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주 공간이 필요하며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친밀감이나 안정감을 통해 물리적 장소에 대한 장소감²⁵⁾이 생성된다. 이 장소감은 인간 존재의 정체성과 존재의 뿌리가 되고 삶을 지탱해준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떠돌이 삶은 장소에 대한 애착과 장소애(topophilia)²⁶⁾로 이어지지 못하고 인간을 부유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만든다. 특히 도시²⁷⁾는 필요에 따라 기능적으로 재편되고, 기능적으로 구획된 공간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개인은 그들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의 존재성도 판가름 난다.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개인의 거주와 생활은 기능주의적 가치에 따라 편재된다. 계획된 기능중심의 공간의 배치와 주거는 인간의 생활방식, 인간관계,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청년세대에게 더 이상 머무는 터전으로서의 의미보다 ‘떠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의 공간들은 한시적이고 유동적인 도시인의 삶의 형태와 닮은꼴이다. 원가족으로부터 새롭게 독립하여 도시에 거주하게 된 청년세대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거주지역과 공간에 배치되는데 그들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공간의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방, 부엌,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 주거 공간을 소유하고 거주지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자신이 전유한 공간만

25) 애그뉴는 ‘장소감’이란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애착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팀 크레스웰, 심승희 옮김, 『장소-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시그마프레스, 2012, 11쪽.

26) ‘토포필리아(topophilia)’는 사람과 장소 또는 배경의 정서적 유대다. 개념처럼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사사로운 경험처럼 생생하며 구체적이다. 이-푸 투안 지음, 이옥진 지음, 『토포필리아』, 예코리브르, 2011, 21쪽.

27) 도시는 워낙 장소가 아니다. 공동체에 기반 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무한 확장 가능 공간태로서 기획된 현대도시는 무장소성이 기본 자질이다. 따라서 현대 도시는 공간의 외연과 함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데서 이해의 관건이 생긴다. 장일구, 앞의 책, 2011, 264~265쪽.

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년세대의 도시 생활은 최소한의 공간에 거주하며 주민이 되지 못한 익명의 존재가 되고,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소속될 수도 없는 청년들은 자기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도시에서 집이란 거주하는 공간, 삶이 지속되는 공간의 의미보다 소유의 대상으로서 물질적 토대이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 장소로서의 의미는 희석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어디에 사느냐는 단순히 지명, 위치와 같은 지리적 개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위상과 경제적 수준까지도 드러낸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는 유대감과 공동의 문화적 관습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어디에 거주하는가는 주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김애란 소설에 나타난 청년세대는 도시 그중 서울의 변두리 ‘고시원’, ‘독서실’, ‘편의점’, ‘재개발구역’, ‘다세대주택 지하 합숙소’ 등의 장소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러한 장소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바는 도시 서울²⁸⁾의 공간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은 서울의 도시적 표지이자 무장소성의 단면을 보여준다.²⁹⁾

28) 문학에 형상화 된 대도시 ‘서울’에 관한 연구는 2013년 한국현대소설학회 학술대회 기획특집으로 ‘현대소설과 서울’이란 주제로 다루어진 바 있다. 이동하, 『도시 공간으로서의 서울과 소설 연구 과제』, 『현대소설연구』 5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9~43쪽; 양윤의, 『서울, 정념의 지도』, 같은 책, 45~78쪽; 오창은, 『도시의 불안과 여성 하위 주체』, 같은 책, 79~110쪽; 장성규, 『신체제기 소설의 ‘경성’ 형상화와 ‘주변부’ 인식』, 같은 책, 111~142쪽; 최애순, 『1950년 서울 종로 중산층 풍경 속 염상섭의 위치』, 같은 책, 143~186쪽. 이밖에도 대도시 ‘서울’을 배경으로 한 문학연구로 조명기, 『일상적 장소성과 관계적 공간성의 두 변증법』, 『서울, 어느 날 소설이 되다』와 『서울, 밤의 산책자들』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50집, 민족어문학회, 2012, 451~478쪽; 송명희, 『자폐적인 내적 공간에 유폐된 자아- 이승우의 「나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3집, 207~223쪽; 송은영,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8; 유성호,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서울’ 형상 연구』, 『서울학 연구』 23,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04. 등이 있다.

29)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 ‘독서실’, ‘재개발구역’, ‘다세대주택 지하 합숙소’ 등은 서울의 인구팽창으로 형성된 편법(불법) 주거지이며, 빈곤과 열악한 주거환

「나는 편의점에 간다」³⁰⁾에서 나는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의 생활은 편의점과 새벽에 배가고플 때 들르는 이동식 포장마차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편의점 사장과도 포장마차의 할머니와도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나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길에서 만난 할머니를 못 본 척 하거나 다니던 편의점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으면 노출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나는 내가 사는 물건으로 노출되고 기억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큐마트를 오래 다니다보니 나는 뜻밖에 의도하지도 원하지 않은 내 정보들이 매일매일 그가 들고 있는 바코드 검색기에 찍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컨대 그는 나의 식성을 안다 ……원한다면 그는 내 방의 크기도 추측할 수 있다. ……그는 나의 가족관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나의 고향을 안다. ……그는 나의 생리주기를 안다. ……그는 나의 식생활에서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고’ 있다. 왜냐하면 편의점이란 모든 걸 파는 곳이기 때문이다.³¹⁾

나에 대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고, 서로 아는 척을 하고 생활방식을 꿰고 있지만 이들 동네 주민과 사적인 관계는 없다. 급한 외출로 잠시 열쇠를 맡기거나 ‘나의 존재를 기억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나의 필요를 아는 척해주는 그곳에서 나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누구도 껴안지

경을 상징하는 현상이다. 서울에 이러한 주거형태를 단순 계산했을 경우 11.2%의 규모라고 한다. 이선화, 김수현(2013), 「대도시의 새로운 불법(편법)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저밀주거를 둘러싼 규제와 목인의 역학-」,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4호, 106쪽.

30) ‘하루에도 몇 번씩 편의점에서 오가는, 내가 한번쯤 만났을 수도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 ……그러나 편의점은 묻지 않는다. 참으로 거대한 관대다.’ 김애란, 「나는 편의점에 간다」, 33쪽.

31) 위의 책, 27쪽.

않았다.’ 편의점이라는 개인의 필요를 아는 척 해주는 그곳에서 개인은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고, 물을 사는, 휴지를 사는, 면도날을 사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소비의 주체로만 남는다.

편의점이라는 구체적 장소에서의 경험은 그곳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장소감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소통이 불가능한 장소상실의 소비적 공간으로 남을 뿐이다. 이때 소비주체인 개인은 고유한 자신만의 특별한 특질은 무화되고 도시의 단자로 남는다. 단자화 된 도시 속 개인의 무화에 대해 ‘당신이 만약 편의점에 간다면 주위를 잘 살피라.’라고 경고한다. 그네들이 들고 있는 물건은 물건 그 자체 고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사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사람보다 물건으로 소통되고 목적이 되는 도시적 삶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인간이 빠진 물건의 교환과 관계는 아무 것도 아닌 것과 같다. 도시에서 부존재로서 존재하는 청년세대의 존재감은 이웃으로 편입되어 도시의 주민으로서 행세하는 것이 아닌 편의점을 통해 소비하고 ‘옥탑방’, ‘고시원’, ‘독서실’과 같은 비거주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정체성이 거세된 존재일 뿐이다. 왜냐하면 공간은 인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성이 생기고,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에서 장소성이 획득되는데, 이들 사이에는 어떤 교류도 관계도 형성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장소는 있으나 장소성은 없다.

청년세대의 출구가 봉쇄된 도시 편입의 최악의 상황은 ‘다세대주택 지하 합숙소’에 거주하게 되는 일이다. 『서른』의 ‘나’는 연인관계였던 옛 남자의 소개로 ‘선진국형 신개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동참하게 되고 ‘창문에 창살이 달린 다세대주택 지하 합숙소’에 거주하게 된다. ‘나’가 합숙하게 된 합숙소는 이 시대의 실업 청년들의 집합소의 다른 표현으로 극한에 몰린 그들의 상황과 경제적 현실을 대변한다. 이런 청년의 수가 몇 천이 아닌 만 명을 헤아린다는 대목에서 청년세대의 절대적 빈곤과 사회구조적 양극화를 실감하게 된다. 개인의 의지로는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수렁과 같은 그곳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대신할 희생양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나는 우연히 문자를 보낸 학원 제자 헤미라면 자신보다 그곳 생활을 ‘잘 해나갈 것’ 이라고 합리화하며 ‘합숙소’를 빠져나온다.

뭔가 잘못 되어 가고 있던 생각이 들었지만 인정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을 그냥 저도 따르고 싶었거든요…… 특히 제가 있었던 곳은요, 언니. 사당에서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꽤 오랫동안 방치돼 슬럼가처럼 흉흉해진 동네였어요…… ‘칼밥’먹고 ‘칼잠’ 자고 최악의 환경에서 지내는 애들이 아침이면 거짓말처럼 말쑥하니 정장으로 갈아입은 뒤 변신을 하고 나왔어요.³²⁾

나를 대신해 그곳에 들어 간 헤미는 돈도, 인간관계도 다 엉망이 되어 피폐한 삶을 끝내려고 자살을 시도하고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그러나 나는 헤미를 찾아볼 용기조차 없다. 극한의 빈곤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궁지로 내몰린 ‘나’는 ‘너’를 사지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인간 존재도 인간관계도 지배받는 도시에서 비극적 주체들은 상품처럼 소비되고 소멸된다.

언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옛날 휴대폰에는 아직도 그 애가 보낸 메시지가 저장돼 있어요 ‘쌤 여기 분위기 짱어요. 원래 이런 건가염. 쌤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쌤 왜 제 문자 씹어요. 쌤 전화 줘. 쌤 어디세요. 쌤 전화 한번만. 쌤 저 좀 꺼내주세요……’ 이 편지 부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³³⁾

『서른』은 10년 전 같은 독서실에서 지냈던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왜 자신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전말을 설명하고 있다.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는 이해받을 수 없는 ‘나’에 대해서 털어놓지만 결국 바뀌는 것은 이들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수렁에 빠지는 사람의 얼굴일 것이라는

32) 김애란, 『서른』, 위의 책, 304~305쪽.

33) 위의 책, 317쪽.

절망적 판단은 청년세대의 새로운 도시빈민의 등장과 몰락을 암시한다.

도시에서 꿈꾸었던 청년세대의 미래, 사랑, 소통은 더 이상 온정적이지 않으며 지극히 사실적인 인물의 일상공간은 그들이 처한 현실과 존재의 한계를 비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김애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욕망의 주체로서 개인의 물신화 된 욕망에 매몰된 타락한 개인은 아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도시에 거주하게 되고 도시에서의 생활방식에 적응하고자 고군분투한다. 그들이 도시 공간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결국 자신의 정체성은 물론 존재 자체를 잃게 되는 악순환의 딜레마는 지속되고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부유하는 존재가 된다.

4. 철거된 ‘방’과 유폐된 자아

‘인간의 공간은 인간의 감각과 정신의 특징을 반영한다.’³⁴⁾ 김애란은 현실공간의 척박함과 탈출의 불가능성을 상상을 통한 공간의 확장으로 공간의식을 전복시킨다. 실재하는, 경험을 통해 구현되는 공간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 경험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한 상상을 통해 구체화 된다.

『종이물고기』의 그는 016으로 시작되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며, 알파벳 b로 시작하는 이메일주소를 가지고 있는 ‘진담의 세계, 범인(凡人)들의 세계에다, 오해의 세계이기까지 한 세계’에 살고 있다. 미숙아로 태어난 그는 ‘사망이 신문지로 도배된 방’에서 자랐다. 그는 신문지로 도배된 방에서 속눈썹 만드는 공장에 일 나간 엄마를 기다리며 글자를 무섭게 독파해 나간다. 그가 출생하고 자라난 공간은 그의 성장과 사회적 존재를 규정하고 한계 짓는다. 그가 자신의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상상

34) 이-푸 투안 지음, 앞의 책, 1998, 34쪽.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는 가끔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공간을 상상한다. 그곳은 실패한 농담들의 쓰레기장, 감기 걸린 영웅들의 사물함, 진심을 위한 뱃지가게, 그리고 이름을 가져본 적 없는 어떤 곳들이다. 그를 둘러싼 집, 상점, 화장실, 학교, 도시는 주로 육면체의 세계이지만 그가 상상하는 공간들이 몇 개의 면으로 이뤄져 있는지는 알 수 없다.³⁵⁾

친척들에게 극구 감추고 싶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온 그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공간은 ‘난간 없는 계단이 옥상으로 연결된 옥탑방’이었다. 이사한 후 그가 몰두한 일은 방의 네 면과 천장에 포스트잇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반듯하게 붙이는 일이었다. 천장에 마지막 한 장의 포스트잇을 붙일 자리만 남았을 때 마치 종이 비늘이 달린 거대한 물고기가 부드럽게 세상을 헤엄쳐 다니는 상상을 한다. 그는 돌아 온 즉시 마지막 문장을 쓸 요량으로 일을 나간다. 그러나 공사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방은 폭삭 허물어져 내려앉아 있었다. 벽면에 실금이 간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주인노파의 타박과 인부들이 쓸어 담은 잔해들 사이로 노란 포스트잇들도 떨어져 들어간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한 장의 포스트잇 종이에 ‘-그는 침도 별로 없는 입을 열며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했다. 그것은 어쩌면 희망 때문일 것이라고’ 그가 쓴 소설 한 구절이 적혀있었다. 그것을 읽는 동안 그는 끼이끼이 운다.

그가 상상한 근사한 공간도 희망도 종이물고기가 헤엄칠 수 없는 것처럼, 상상의 공간이 현실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폭삭 주저앉고 그의 현실 공간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의 한계를 보여준다.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은 실존을 넘어선 존재의 정체성을 ‘집’을 통해 보여주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방은 그들의 정체성을 은유한다.

35) 김애란, 『종이물고기』, 『달려라, 아비』, 창비사, 2005, 194쪽.

우리 집은 빌라 뒤편에 있는 낭떠러지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절벽의 높이는 10미터가량 된다. 하지만 내가 사는 4층에선 더 까마득해 보인다. ……(중략)……장미빌라와 A구역의 경계, 그러니까 절벽 아래에는 잡초가 무성하다. 오랫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은 땅에서 멋대로 자란, 집요하고 탐욕스러운 인상을 주는 풀이다. 그곳에서 이따금 장미빌라로 생전 처음 보는 벌레들이 기어 들어온다. 파랗고 통통하고 꾸물거리는, 혐오감을 주는 어떤 것들이.³⁶⁾

서술자가 느끼는 불안은 집의 위치, 주변 환경에서 드러나는 ‘재개발지역’, ‘무성한 풀’, ‘혐오감을 주는 벌레’ 등으로 기호화 되고 있다. 재개발로 인한 소음과 진동, 먼지, 쓰레기 등은 서술자가 거주하는 공간의 열악함을 보여주고, 공간의 열악함은 서술자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벌레들』과 『물속 골리앗』³⁷⁾의 서사 공간은 거주민이 거의 떠나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주거공간으로 삼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이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착할 수 없는 현실은 곧 그들의 불안감의 원인이다.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서사적 배경이자 인물들의 생존과 직접 관련된다. 이들이 느끼는 고립감과 불안의식은 인물의 내면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부터 기인한다.

『벌레들』의 아내는 떨어뜨린 반지를 주우러 낭떠러지 아래 공사구역

36) 김애란, 『벌레들』, 『비행운』, 문학과 지성사, 2012, 49~50쪽.

37) 김애란의 2000년대 초·중반 소설 속 인물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여유를 가지고, 삶의 터전에 적응하며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2000대 후반 이후 작품 속 인물은 환경을 적응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에 패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층 불안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개인의 의지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비정하게 흘러가는 현실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으로 들어갔다가 무수한 벌레들에 놀라 넘어지고 양수까지 터지지만 누구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고립의 상태가 된다. 공사로 인한 소음과 최소한의 쾌적함도 보장할 수 없는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죽음의 공간이다. 외부로부터 침입해 오는 벌레들과 생존을 위한 물과 전기도 공급 받지 못하는 도시 빈민의 삶은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의 어두운 이면이고, 거대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개인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주위는 소름끼치게 조용했다. 이따금 개가 짖었으나 쾅- 소리의 잔향은 들관 위 적막만 도드라지게 했다. 사람들은 기척이 없었다. ……(중략)…… 여러 말이 오갔고, 많은 일이 있었다. 어른들은 길에서 자주 울었다. 여염집 때문에 다윗의 별처럼 하나둘 X자가 늘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속 이야기와 달리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표식이 아니었다. 우린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다.³⁸⁾

계시록의 표시가 아닌 묵시록의 표시가 되어버린 X는 붉은색 페인트로 여기저기 칠해진 뒤,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나’와 어머니만 남아있다. 이미 그의 집에도 X가 칠해져 있으므로 떠나야하지만 이주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나’는 죽음의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다. 『물속 골리앗』의 나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재개발을 위한 이주가 끝나 수돗물과 전기도 공급되지 않는 아파트에서 빗물과 촛불을 사용하며 거주를 연장하고 있다. 담보대출로 산 아파트는 대출금을 다 갚았을 때, 집주인이라는 사람의 출현으로 텅없이 적은 이주비조차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모자는 장마로 큰비가 내리던 날 아파트에 고립되고 설상가상 쇼크로 어머니마저 숨진다. 어머니를 두고 나올 수 없었던 나는 문짝을 뜯어 어머니를 테이프로 묶어 탈출을 시도하지만 불어난 물에 어머니의 시신

38) 김애란, 『물속 골리앗』, 『비행운』, 문학과 지성사, 2012, 87~88쪽.

마저 수습할 수 없다. 이 두 작품에 드러난 최악의 비극적 상황은 그들이 거주했던 공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집’은 인간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호 해주는 공간이지만 이들 서사에 드러난 공간은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존엄성을 훼손한다. 철거된 건물의 잔해에 섞여있는 아내와 죽어서도 물위에 떠다니는 쓰레기처럼 부유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 그들의 열악한 삶은 그들의 거주했던 공간과 맞물리며 비극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존재마저 파괴된 죽음의 공간만이 남아있다.

5. 마치며

김애란 소설 속 인물은 거주공간이 침범 당했을 때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인물의 자기 정체성도 분열적 양상을 보인다. 일상의 장소가 장소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존재는 사회로부터 부정되고 배제된다. 어디에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이들은 무시된 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스스로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현실은 냉정하고 비관적이다.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욕망의 주체가 되어 소비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닌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지위를 기대하지만 그들의 삶은 험사리 바뀌지 않는다.

김애란 소설의 서사 공간은 현대사회의 단자화 되고, 물화 된 청년세대의 정체성을 대변해준다. 청년실업문제, 가족관계의 약화, 인간소외와 인간의 도구적 존재로서 전락 등등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인물의 거주공간과 생활공간, 경험공간 등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다. 개인의 의지와 심성, 삶의 태도를 배반하는 환경은 ‘세계-내-현존재’로서 개인의 한계와 정체성을 드러낸다.

인간이 생존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는 토대이자 보금자리였던 ‘집’은 더 이상, 안정과 안락함을 제공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떠돌이 삶을 살

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청년세대에게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장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곳을 떠나기 위해 이곳에 머문다'는 모순적 상황은 그들의 현재 위치를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녀가 잠 못 드는 이유가 있다』의 '그녀'가 오랜만에 함께 지내게 된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침이 고인다』의 '그녀'가 후배와의 동거를 불편해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협소한 공간에서 충돌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안정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개인 공간도 허락되지 않고, 기억과 추억이 쌓여가는 공동체적 공간도 사라진 '집'과 '방'은 세계와 '나', 타인과 '나'를 구분하는 경계로서 자리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유대감은 이루어지지 않고 배제의 서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애란 소설에서 청년세대가 머물고 있는 서사내 공간은 지하 셋방, 옥탑방, 계단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산꼭대기에 위치한 첼대문집, 고시원, 독서실, 편의점, 노동과 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갯방, 지하철 안, 재개발지역의 빌라와 허물어져가는 아파트, 그 중 최악은 다세대 지하 합숙소라 할 수 있다. 가장 형편이 나은 경우가 13평짜리 원룸이다. 그것도 주거비용을 대느라 다른 사치는 엄두도 낼 수 없다. 이러한 서사내 공간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인물이 아무리 과장을 하고 달리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제 상황과 양극화의 극단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은 주체성을 상실하고 정서적 안정도 찾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들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하는 공간은 현재 열악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미래까지 예견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김애란 소설에서 공간이 표상하는 공통된 특질은 열악한 환경, 가난, 한시성, 일회성, 생산적이기 보다는 소비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소통의 공간이 아닌 불통의 공간이자 소외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인물들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재수하거나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들의 사회적 계층은 그들의 주거 공간으로 여실히 드러난다. 『칼자국』에서 아버지가 “인생은 원래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밑바닥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인생은 아직 밑바닥에 머물러 있으며, 내 인생도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가난과 불행한 삶이 대물림되는 것이다. 더 이상 서로의 존재와 체온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은 가족, 친구, 사랑, 우정도 허락지 않는다.

가족의 손때 묻은 가구도 아끼는 물건도 장식품도 펼쳐놓을 수 없는 최소한의 공간, 성장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얼룩도 없는 최악의 생존 조건으로 제공된 공간은 구체적인 장소를 통한 장소감의 공유나 애착으로 이어질 수 없다. 김애란 소설의 공간은 청년세대의 무기력한 정체성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미래에 대한 꿈조차 허락되지 않는 최악의 조건임을 보여준다. 작가는 청년세대의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주거공간을 통해 독립된 정체성을 구현할 수 없고, 불구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후기자본주의사회 도시변두리의 삶을 비극적으로 조망한다. 자기 한 몸조차 건사할 수 없는 환경은 타인을 배려하거나 미래를 계획하거나 정서적 교감을 상상할 수조차 없게 만들고 비루하고 남루한 인생을 변명하게 만들고 있다.

김애란은 소설집 『달려라 아비』, 『침이 고인다』,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인생』에서 보였던 절망적 상황에도 유머를 잃지 않고, 재치 있는 언어 감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유를 잃지 말라고, 살아볼 만하다고 했지만 『비행운』에 수록된 소설에서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서사와 결말로 한층 가혹해진 현실을 전하고 있다. 서사 내 공간을 통한 공간의식도 좁지만, 열악하지만, 한시적이지만 희망을 꿈꾸고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그려졌던 것에서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죽음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어 현실이 그만큼 악화되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청년세대가 머물고 있는 공간의 열악함, 협소함은 더 이상 유토피아를 꿈 꿀 기회와 상상력마저도 소진되어버린 디스토피아의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김애란 『달려라 아버지』, 창비, 2005.
『침이고인다』, 문학과 지성사, 2007.
『두근두근 내 인생』, 창비, 2011.
『비행운』, 문학과 지성사, 2012.
『침묵의 미래』, 『2013 제37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 2013.

2. 단행본 및 논문

-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권성우, 『조속한 청춘의 문학-김애란론』, 『낭만적 망명』, 소명출판, 2006.
김나정, 『성난 얼굴로 뒤돌아보지 말라』, 『문학동네』 제48호, 문학동네, 2006, 129~144쪽.
김예림, 『두도시 이야기: 김애란과 편혜영 읽기』, 『오늘의 문예비평』 68호, 오늘의 문예비평, 2008, 28~41쪽.
김재덕, 『김애란 초기 단편소설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논문, 공주대학교, 2011.
나병철, 『환상소설의 전개와 성장소설의 새로운 양상』, 『현대소설연구』 제31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287~314쪽.
노베르그 슐츠, 민경호 외 옮김, 『장소의 혼: 건축의 현상학을 위하여』, 태림문화사, 1996.
백지은, 『탈(脫)성장의 정치적 상상력- 200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키덜트’현상과 담론』, 『비평문학』 제33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249~273쪽.
송명희, 『자폐적인 내적 공간에 유폐된 자아- 이승우의 『나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3집, 2013, 207~223쪽.

- 송은영,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8.
- 송지연, 『아이들의 우주적 네트워크-2000년대 한국소설의 패러다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419~448쪽.
- 신형철, 『소녀는 스피노자를 읽는다』, 『문학동네』 제49호, 문학동네, 2006, 322~336쪽.
- 양운의 『서울, 정념의 지도 -200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45~78쪽.
- 오창은, 『여기, 상상력의 불꽃놀이가 시작되다』, 『소설 이천년대』, 생각의 나무, 2007.
- _____, 『도시의 불안과 여성 하위 주체』, 『현대소설연구』 제52호, 2013, 79~110쪽
-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지음,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 우미영, 『현대 소설과 가족의 탈근대- 윤성희 · 김애란 · 강영숙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1권, 한국문예비평학회, 2006, 31~52쪽.
- 우찬제, 『접속시대의 최소주의 서사- 김미월 · 김애란 · 한유주』, 『문학과 사회』 제73호, 문학과 지성사, 2006, 393~410쪽.
- 유성호,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서울’ 형상 연구』, 『서울학 연구』23,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04.
- 이도연, 『정직과 관대 혹은 욕망의 자기 윤리학』, 『문학동네』 제52호, 2007, 104~120쪽.
- 이동하, 『도시공간으로서의 서울과 소설 연구 과제』, 『현대소설연구』 제5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9~43쪽.
- 이선화, 김수현, 『대도시의 새로운 불법(편법)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저렴주거를 둘러싼 규제와 목인의 역학-』,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4호, 2013, 105~125쪽.

- 이수형, 『미디어의 환상을 넘어서- 김중혁·한유주·김애란의 소설』, 『문학과 사회』 제70호, 문학과 지성사, 2005, 211~230쪽.
- 이영미, 『김애란의 성장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12.
- 이정석, 『작지만 경쾌한 소설들- 김애란론』, 『멜랑콜리아의 윤리』, 작가와 비평, 2011.
- 이평전, 『현대소설에 나타난 ‘일상’ 재현의 의미와 ‘주체’ 서사연구-정이현, 김애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375~397쪽.
- 이-푸 투안 지음,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8, 19~20쪽.
- 이-푸 투안 지음, 이옥진 지음,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2011, 21쪽.
- 장성규, 『신체제기 소설의 ‘경성’ 형상화와 ‘주변부’ 인식』, 『현대소설연구』, 제5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111~142쪽.
- 장일구, 『서사적 공간론 이론과 실제』, 『서강어문』 No.1, 서강어문학회, 1997, 193~224쪽.
- 장일구, 『경계와 이행의 서사 공간』,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30쪽, 264~265쪽.
- 정민우·이나영, 『청년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고시원 주거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5집 2호, 2011, 130~175쪽.
- 정혜경, 『여성성장소설에 나타난 가족서사의 재구성- 아버지부재(不在)모티프에 대한 서사적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44집, 국제어문학회, 2008, 407~434쪽.
- 조명기, 『일상적 장소성과 관계적 공간성의 두 변증법; 『서울, 어느 날 소설이 되다』와 『서울, 밤의 산책자들』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50집, 민족어문학회, 2012, 451~478쪽.
- 진정석, 『사회적 상상력과 상상력의 사회학』, 『창작과비평』 제134집 4, 창작과 비평사, 2006, 208~222쪽.

- 최애순, 「1950년 서울 종로 중산층 풍경 속 염상섭의 위치」, 『현대소설연구』 제5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143~186쪽.
- 팀 크레스웰, 심승희 옮김, 『장소-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시그마프레스, 2012, 11쪽.
- 황종현 · 백낙청, 「무엇이 한국문학의 보람인가- 문학평론가 백낙청과의 대화」, 『창작과비평』 제131호 1, 창작과 비평사, 2006, 291~318쪽.

Abstract

A study on the isolated self-identity of youth and dystopian imagination

-Focus on Ae-Ran Kim's novel -

Jang, mi-young

This report is to contemplate the 'spatiality' found in Ae-Ran Kim's novel through spatial symbol and the spatial consciousness that occurs from space and the character's awareness. This will be of vital importance in providing the author's condition of world view, and identifying the literary theme. In modern society's urbanized 'home', 'family' ceases to exist, and it degenerates into the concept of 'property' decided by the arrange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surrounding's functional space. With 'house' losing its significance as a place, it is replaced by a personalized 'room'.

The narrative space of Ae-Ran Kim's novel represents the division of modern society, and the identity of the reification of being. Serious problems of modern society like youth unemployment problem, weakened family ties, human alienation, the degeneration of human into an instrumental being, etc. are actualized through the character's living space, life space, and experience space. The environment that betrays an individual's will and emotion, and attitude towards life, reveals the individual's limit and existence as a 'being-in-the-world'

The spatial consciousness formed in the narrative between the

author and the reader acquires spatial concreteness, and develops social implication of space. The rising generation that appears in Ae-Ran Kim's novel can be understood by interlinking it to post capitalism. Furthermore, the author critically contemplates the poor environment that the rising generation of today has to live in. Such critical understanding of reality materializes through the character's life and living space.

The common characteristics represented by these spaces are poor environment, momentariness, disposability, and being consumptive rather than being productive. In addition, it is not a space of interconnectedness, but a space of miscommunication and alienation.

Key words: spatiality, family, spatial consciousness, property, human alienation, 'being-in-the-world', environment, isolated self-identity, miscommunication, dystopian imagination

■ 본 논문은 7월 20일에 접수되어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8월 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